

‘치유의 땅:한국의 산’ 구상도



곡성출신 정원디자이너·환경예술가 황지해 작가

# 195년 전통 ‘첼시 플라워쇼’ 참여한다

‘치유의 땅:한국의 산’ 지리산 원시림 약초군락 모티브  
2011년 ‘해우소’ 금메달·2012년 ‘DMZ’ 최고상 수상

‘지리산 이른 아침 햇빛 먹고 자란 산약초, 세계에 선보인다.’

곡성 출신 정원디자이너이자 환경예술가 황지해 작가가 195년 전통의 세계적인 정원박람회 ‘2023 첼시 플라워쇼’에 참여한다. 2011년과 2012년에 이은 3번째 참가다.

영국왕립원예협회(RHS)는 20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5월(23~27일) 런던에서 개최되는 ‘첼시 플라워쇼’ 대표 분야인 ‘쇼가든’ 부문 12개 참여 작품 명단을 발표했다. 6월 신청 접수 후 3개월에 걸친 심사를 거쳐 확정된 명단이다.

내년 경연에서 황 작가는 이미 금메달을 14번 받은 크리스 비어드쇼, ‘첼시 쇼’의 왕으로 불리는 마크 그레고리, 런던올림픽 공원을 설계한 세러 프라이스 등 경쟁한 작가들과 함께 우승을 겨루게 됐다.

황 작가의 출품작은 ‘치유의 땅:한국의 산’ 한국의 어머니 산으로 불리는 지리산의 인척 드문 원시림인 동남쪽 약초군락을 모티브로 삼은 것으로 지리산 산비탈의 산약초와 희귀식물 등을 심은 정원을 조성할 예정이다.

황 작가는 2011년 전통 화장실을 정원으로 승화시킨 ‘해우소:근심을 털어버리는 곳’을 처음 출품, ‘아티즈 가든’ 부문 금메달과 최고상을 받았고 2012년에는 ‘DMZ:금지된 정원’으로 전체 최고상(화장상)과 금메

달을 심사위원 만장일치로 동시 수상했다. 또 국립현대미술관 ‘원형정원 프로젝트: 달뿌리-느리고 빠른 대화’를 진행하기도 했다.

1827년 치즈워가든에서 처음 열린 ‘첼시 플라워쇼’는 영국 여왕 등 왕실 일가가 매년 방문해온 주요 행사로 찰스 3세 국왕과 케이트 미들턴 왕세자빈이 작품을 내놓기도 했다.

황 작가는 지리산 운봉에서 처음 발견된 모데미풀, 붉은 보랏빛이 강한 지리산의 희귀식물 지리터리풀 등 한국 자생종과 특산종으로 정원을 꾸미며 약초꾼들이 약초를 말리던 건조장도 연출한다고 밝혔다.

정원 테마를 ‘지리산 약초’로 잡은 건 몸이 안좋져 자연스레 ‘몸’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다. 의학적 도움과 함께 양질의 건강한 음식을 내 몸에 제공해주고, 좋은 식물을 접하는 게 필요할 거라 생각했던 그는 약초가 가장 많은 장소로 ‘지리산’을 떠올렸다. 공부하면서 무려 1500종의 식물이 자생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땐 놀라웠다.

“약초꾼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세상의 모든 식물은 이른 아침 햇빛을 받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해요. 아침 태양의 기운을 받고 자란 식물이 건강하고 약성도 좋다고 합니다. 팬데믹, 기후변화, 탄소중립 등이 이야기되는 현 시점에서 나와 자연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 특산종을 지키는 게 곧 나를 지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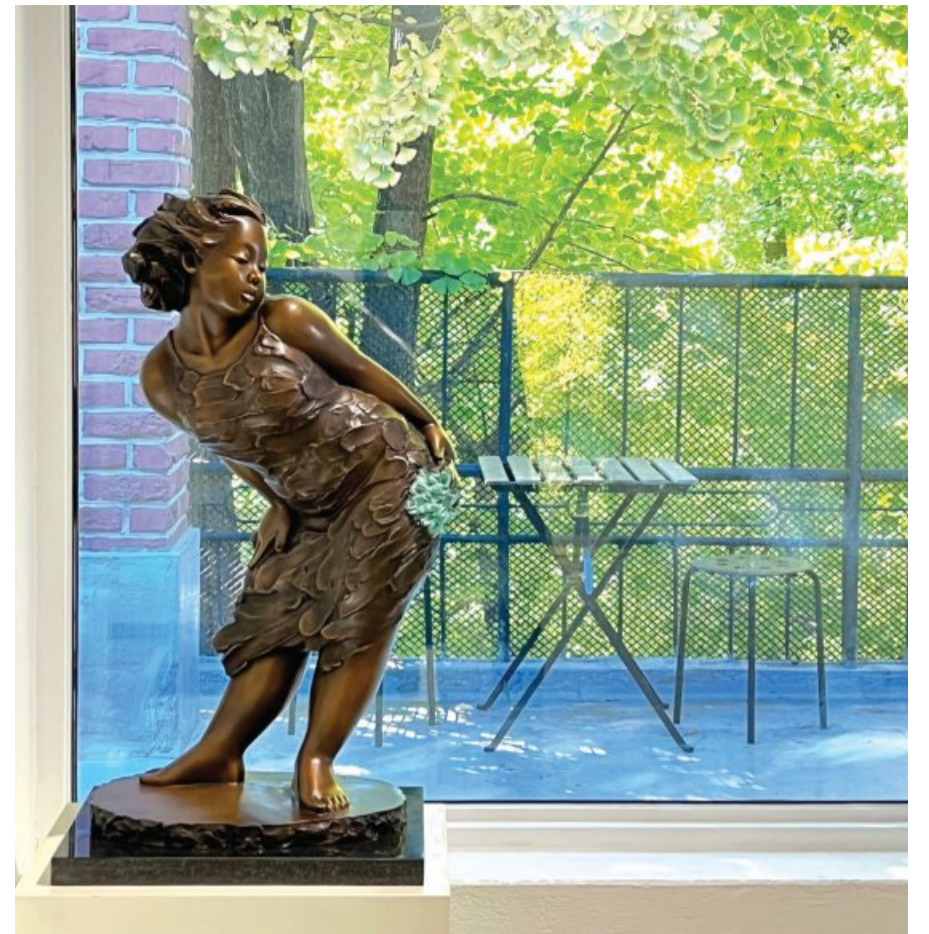
황지해 작가

는 것, 지구를 지키는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세계인들에게 우리 것을 알리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영국 시공사와 계약한 황 작가는 조만간 영국으로 출국, 정원 조성 준비를 시작한다. 다 자란 약초를 반입할 수 없음에 따라 파종이 가능한 것 위주로 선정해 영국 육묘장에 파종을 시작하고 더불어 현지 헌터들과 함께 영국, 네덜란드 등에서 유사한 종자를 찾을 예정이다. 또 지리산 바위 등과 비슷한 스크롤랜드 암반 등도 확보할 계획이다.

왕립원예협회는 보도자료에서 황 작가의 작품이 “1000종 이상의 토종 약초가 자라는 지리산 주변의 균형잡힌 생태계를 소개하고, 한국의 생태복원 프로젝트가 토종 식물 멸종을 막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됐는지를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출품작들은 영국과 세계 각지에서 암센터를 운영하는 매기재단으로 영구 기증된다. 황 작가는 “제 자신의 가능성을 다시 한번 시험해보고, 발견하고 싶어 11년만에 다시 한번 첼시의 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서울 삼청동 갤러리 아트비프로젝트에서 열리는 정춘표 작가 조각전.

## 조각으로 새긴 ‘아름다운 길’

정춘표 초대전, 29일까지 서울 삼청동 아트비프로젝트

구상조각과 설치작품의 경계를 오가며 다양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조각가 정춘표 초대전이 서울 삼청동 갤러리 아트비프로젝트에서 오는 29일까지 열린다.

‘아름다운 길 Beautiful Scenery’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정 작가는 오랫동안 탐구해온 여인상을 비롯해 지금까지 작업 세계를 오롯이 보여준다.

이번 전시에서는 역동적인 모습의 여인과 삶의 안녕을 바라며 섬세하게 빛어낸 북어, 만물이 드러낼 수 있는완결된 미의 형태인 사과 등 세 가지 주제로 궁극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정 작가는 목직인 브론즈와 대리석을 비롯해 좀 더 다루기 쉬운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의 특성에 맞는 작품을 제작해왔다.

브론즈, 합성수지 등 다양한 재료로 작업한 사과 조각 작품은 다채로운 색감과 질감 탓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풍

요와 사랑을 상징하는 사과를 통해 아름다운 꿈을 꾸는 마음을 서정적이고 맑은 감성으로 표현한 작품들이다.

가족과 집안의 안녕을 기원하는 북어 시리즈도 눈길을 끈다. ‘물처럼 바람처럼’ 등 아르키메데스 알루미넨으로 작업한 작품들은 다양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번 작품을 포함해 시리즈 속에 항상 등장하는 한 마리의 새는 작가의 자유로운 상상의 세계, 훨훨 날고자 하는 자유에 대한 그리움과 작가가 유년시절을 보낸 화순에 대한 향수를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정 작가는 조선대 미술대학 조소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일본, 프랑스, 광주 등에서 20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전국조각가협회 이사장, 대한민국미술대전 심사위원장 역임했으며 현재 아트포즈연구원 소 대표를 맡고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 홍익대 미대 동문전 27일까지 이화갤러리

제 25회 광주·전남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동문회(회장 최향) 기념전이 오는 27일까지 광주 예술의 거리 이화갤러리에서 열린다.

광주·전남 홍익대 미술대학 동문회는 홍익대 미대를 졸업 후 광주·전남에서 작품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작가들의 모임으로 50여명의 동문이 다양한 장르에서 각자의 작품 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회원들은 지난 1995년 남부미술관에서 제1회 전시 ‘21세기 그 빛과 어둠(THE LIGHT & DARKNESS OF THE 21CENTURY)’을 개최한 것을 시작으로 매년 동문전을 개최, 작품 세계를 선보이고 있다.

올해 전시에서는 회화, 조소, 공예, 디자인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18명의 작가가 작품을 내놓았다. 참여작가는이부열·최석·주치수·남호정·강철구·황중환·박성현·최향·최문갑·이봉규·변경섭·최주호·송숙남·김주희·김25·곽우섭·장우호·신도원 등이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최향 작 ‘광주의 가을은 아름답다’

## 함민복 시인·유성호 평론가 ‘인문학 아카데미’ 26일·11월 4일

‘눈물은 왜 짙까’의 함민복 시인과 ‘비평의 본령에 충실한 비평가’라는 평가를 받는 유성호 문학평론가의 인문학 강연을 들을 수 있는 아카데미가 마련됐다.

광주 남구가 마련한 ‘인문학 아카데미’ 강연에 함 시인은 오는 26일, 유 평론가는 오는 11월 4일 강연을 한다.

먼저 함 시인은 26일 오후 2시 구청 8층 대회의실에서 ‘무등산 아래에서 마음의 꽃 시를 만나다’라는 주제로 강연을 한다.

서정시의 본류를 이어가는 대표 시인인 함 시인은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을 비롯해 ‘김수영 문학상’, ‘운동주 문학대상’을 수상했다. 20여년 전 서울에서의 삶

을 정리하고 강화도로 들어간 뒤 활발한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오는 11월 4일 오후 2시 봉선2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평론가인 유성호 한양대 교수가 독자들을 만난다. ‘위안과 치유의 인문학’이라는 주제로 오늘의 시대에 왜 인문학이 필요한지를 이야기할 예정이다.

유 평론가는 그동안 양림동 출신인 ‘대형 김현승 시 연구’를 비롯해 ‘한국 시의 과정과 결핍’, ‘움직이는 기억의 풍경들’, ‘정격과 역전의 정형 미학’ 등 다수의 저서를 출간한 바 있다. 문의 062-607-2614.

/박성현 기자 skypark@kwangju.co.kr



함민복 시인



유성호 평론가

## 깊어가는 가을...인문의 향기

인문지행 ‘인문주간22’ 26~29일 중현 스킨 등

‘빛고을 그림 이야기’, ‘명상을 통한 힐링, 중현 스님’, ‘시민 사랑의 인문향연’...

깊어가는 가을 인문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가 열린다.

인문지행이 진행하는 ‘인문주간22-빛고을 시민사랑’이 그것. 이번 행사는 민주인권 평화의 가치를 공유하며 인문도시로서의 지속가능한 토대를 구축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으며 광주시가 후원한다.

먼저 빛고을 모습을 캔버스에 담은 그림동아리 전시회가 오는 26일부터 29일까지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남구 양촌길 1) 1층 전시장에서 열린다. 빛고을 풍경을 시민들로 구성된 동아리별 스케치 활동으로 담아내고 그 결과물을 시들과 공유하는 전시회다.

또한 26일 수요일에는 인문사랑 ‘명상을 통한 힐링’ (전일빌딩 4층 중회의실)이 펼쳐진다. 강사는 중현 증심사 주지로 위로와 공감, 치유를 키워드로 명상에 대해 들려준다.

또 다른 인문학향연은 오는 29일(오후 1시 30분) 양림동 10년후그라운드에서 진행된다.

1부는 심옥숙 박사가 진행하는 인문독서&그림 동아리 활동 발표회가 열린다. 지역 인문자원을 활용한 시민참여형 인문 동아리를 육성하고 그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2부는 전문 연주자들의 4헬로 연주



중현 스님



진모영 감독

인생시 낭송을 이어간다.

마지막 3부는 한종면(기타), 김이곤(장고), 김수진(바이올린)으로 구성된 국악 크로스오버 연주회로 시작된다. 영화 ‘남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의 진모영 영화감독이 명사 초대사의 손님으로 나서 ‘다큐멘터리가 들어올린 연꽃 한 송이’를 주제로 강연 및 대담이 진행된다.

/박성현 기자 skypark@